

5월 고용동향 특징과 시사점

김복순*

I. 머리말

정부는 6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0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5% 내외에서 5.8%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증가폭 또한 당초 25만 개 내외에서 3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5월 일자리는 전년 동월대비 586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증가와 투자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견조해지면서 2분기부터 고용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과 5월 취업자수는 23,924천 명, 24,3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01천 명, 586천 명 증가하였다. 이로써 5월까지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277천 명을 기록함으로써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5만 명 내외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2009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폭은 2분기의 실적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10년 하반기에 ‘포스트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 4천 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회복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대책의 효과로 고용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뚜렷한 고용회복세를 보이는 최근의 일자리 특징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II. 최근 일자리 특징

2010년 5월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586천 명 증가하였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 또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여 60.0%를 회복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7월 60.3%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는 수치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0년 들어 지속되고 있다.

1. 상용직·임시직 중심의 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증가세 주도

최근 일자리 증가세는 우선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의 임금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 2010년 5월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62천 명 증가하였다.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는 2010년 5월 다소 주춤했지만 그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산업은 주로 제조업(153천 명), 도소매업(12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3천 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천 명), 공공행정(13천 명) 등은 상용직 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종사상지위별 일자리 변동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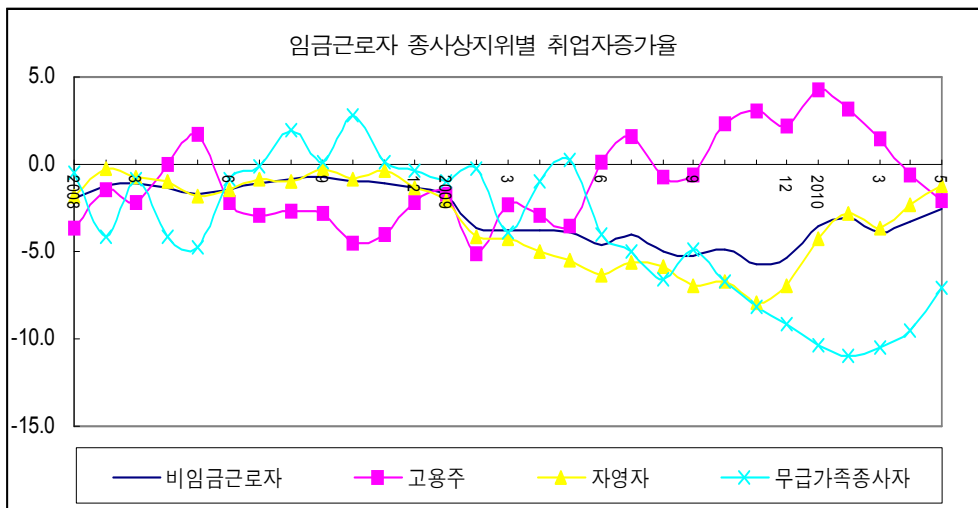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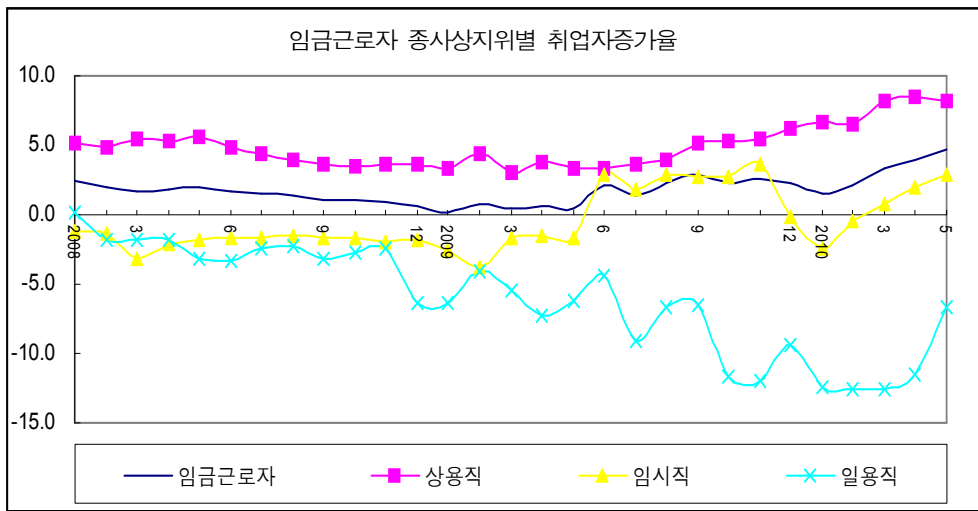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전 체	145	-72	200	-169	277	181	-219	586
임금근로자	236	247	308	79	505	310	79	770
상용직	386	383	445	318	700	478	306	762
임시직	-93	22	-100	-115	27	-94	-89	147
일용직	-57	-158	-37	-125	-222	-73	-138	-139
비임금근로자	-92	-319	-108	-248	-228	-129	-298	-184
고용주	-35	-10	-18	-48	18	26	-55	-32
자영자	-44	-249	-49	-184	-119	-83	-245	-50
무급가족종사자	-13	-60	-41	-16	-127	-72	3	-1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편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임시직이 증가한 이후 2009년 12월부터 임시직 근로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임시직이 증가하여 2010년 5월 전년동월대비 14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2010.3.2 ~ 2010.6.30)의 영향으로 보인다. 임시직이 증가한 산업을 보면 공공행정(126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64천 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림 1]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감소추세이다. 2010년 5월 일용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 감소함으로써 최근 감소폭(2010년 1월 244천 명, 2월 239천 명, 3월 240천 명, 4월 240천 명) 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는 공공행정(44천 명) 그리고 내수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23천 명), 도소매업(16천 명)과 제조업(19천 명)에서 두드러졌다.

2. 취약계층에서도 고용회복세 확인

최근까지의 일자리는 상용직 중심의 팽창은 일자리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시그널과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일자리만을 본다면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에서도 고용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

먼저 여성의 일자리가 2010년 2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0년 5월 전년동월대비 318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일자리 또한 전년동월대비 268천 개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증가율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여성의 늘어난 일자리는 50~60대 고령층(230천 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90%에 가까운 199천 개의 일자리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15천 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대 남성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여성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일자리를 종사상지

<표 2> 취약계층(여성, 청년, 고령층)의 일자리 변동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전 체	145	-72	200	-169	277	181	-219	586	
성별	남성	96	31	130	-18	162	130	-8	268
	여성	48	-103	70	-151	115	51	-211	318
연령별	20대	-118	-127	-94	-172	-24	-68	-112	-15
	30대	-26	-173	10	-183	-27	39	-211	1
	40대	64	-24	47	-6	11	38	-37	63
	50대	207	198	235	175	289	193	141	374
	60세 이상	18	54	2	17	28	-22	0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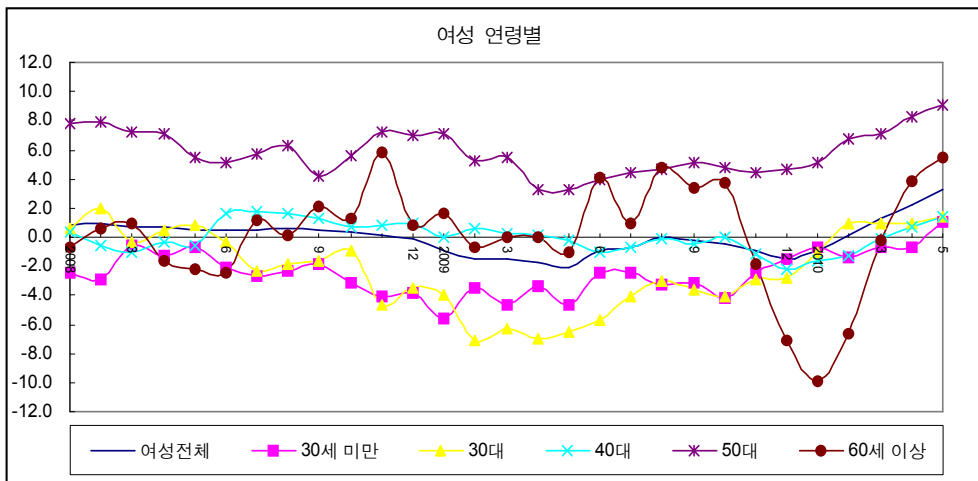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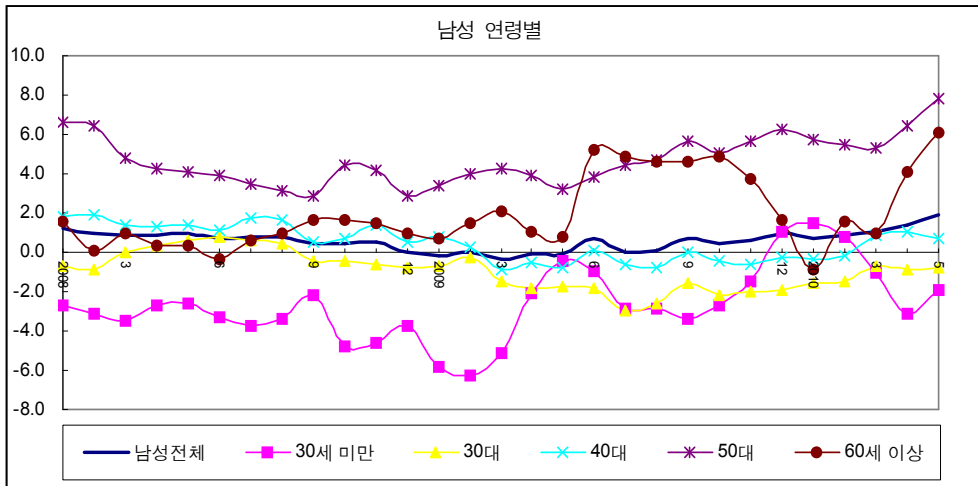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위별로 보면 상용직이 전년동월대비 59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의 일자리가 57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연령층의 취업자증가율은 2004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왔으며, 2010년 5월 현재 -0.1%를 기록하여 동 기간 중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30대 연령층의 경우 2010년 5월 현재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0대 여성의 일자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그림 2] 취업자의 성별·연령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2009년 30대 연령층의 일자리는 전년대비 173천 개나 사라졌다.

〈표 3〉 산업별·규모별 일자리 변동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전 체		145	-72	200	-169	277	181	-219	586
민간/공공	민간	101	-263	149	-222	229	108	-308	517
	공공	43	191	51	52	48	73	89	69
산업	농림어업	-30	-38	-52	-2	-142	-54	-48	-88
	제조업	-52	-126	-22	-157	104	-32	-140	190
	건설업	-37	-91	-27	-76	-24	-40	-125	46
	도소매음식숙박점업	-47	-139	-39	-126	-52	-42	-159	7
	도소매업	-41	-32	-27	-54	4	-30	-69	32
	음식숙박점업	-5	-107	-12	-72	-56	-12	-90	-24
	전기운수통신금융	13	-25	68	-70	98	74	-59	58
	전기가스 등	4	5	7	4	-19	14	1	-22
	운수업	1	-1	17	-22	53	26	-10	30
	출판·영상 등	-7	25	12	2	27	27	26	-8
	금융보험업	15	-55	32	-54	36	8	-75	58
	사업개인서비스업	107	-46	84	39	72	27	27	156
	부동산임대업	-17	12	-25	21	14	-45	28	26
	전문과학 등	55	87	15	96	40	44	97	52
	사업시설관리 등	20	-29	39	-19	45	-6	-18	60
	예술스포츠 등	48	-28	27	20	-41	33	-8	-8
	협회단체 등	6	-86	17	-75	27	2	-77	51
	가구내 고용활동	-11	-3	1	-9	0	-13	-2	-7
	국제 및 외국기관	1	-4	2	-3	-2	0	-4	-4
	하수폐기물 등	5	6	7	8	-10	11	11	-13
	사회서비스	190	394	188	224	220	247	285	217
교육서비스업	44	48	41	29	43	81	26	3	
보건업 등	103	156	96	142	129	92	170	146	
공공행정	43	191	51	52	48	73	89	69	
규모	1~4인	-79	-440	-87	-332	-119	-163	-422	11
	5~9인	30	-20	46	-56	94	52	-72	207
	10~29인	73	120	108	94	104	99	91	197
	30~99인	55	114	84	24	196	83	71	221
	100~299인	38	37	13	19	26	51	2	3
	300인 이상	28	117	36	81	-24	60	111	-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0~60대 고령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2010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36천 개(50대 374천 개, 60세 이상 162천 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령층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 469천 개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3월 이후 이들 연령층에서의 임시직증가율은 2010년 5월 현재 1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이들 연령층에서의 일용직 일자리가 2010년 5월 증가세로 전환하여 전년동월대비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와 더불어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3.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중심의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 증가

2010년 5월 신규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586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517천 개가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이다. 이들 신규 일자리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이 3월, 4월의 부진을 딛고 5월 현재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건설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또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과 더불어 큰 폭의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0년 5월 전년동월대비 69천 개로 증가세가 다소 하락하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5월 공공부문 일자리는 임시직이 126천 명 증가한 반면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 13천 명, 4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일자리 증가세는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5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638천 개이다. 특히 2010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5월에는 11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일자리는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2천 개 사라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상용직 중심의 판매직 일자리의 것으로 나타났다.²⁾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라진 상용직 일자리는 30대

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라진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6천 개로 나타났다.

연령층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운수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기업에서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재는 고용부진이 극심했던 2009년 5월에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111천 개 창출되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하반기에는 2009년 기저효과로 고용사정이 상반기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4.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는 자발적 이직자 증가

2010년 4월에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다가 2010년 5월 현재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근로자는 3,194천 명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3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기에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고, 경기회복기에는 자발적 이직자가 증가한다. 2010년 5월 현재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4〉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변동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전 체	-59	243	-129	180	404	-126	209	233
자발적 사유	-55	27	-97	-12	225	-85	-16	208
(작업여건 불만족)	-3	-13	9	-57	79	-11	-33	44
비자발적 사유	-11	214	-30	194	160	-36	230	24
기타	7	2	-2	-2	19	-5	-4	1

주: 자발적 사유는 개인, 가족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불만족을 포함하며, 비자발적 사유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를 포함하며, 기타는 정년퇴직, 연로, 기타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최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산업내 고용변화

2010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물론 2009년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제조업(계절조정)의 경우 전월대비 2.7%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계절조정)은 1.2%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전월대비 생산부진은 교육서비스업(-16.2%), 부동산업 및 임대업(-4.7%), 운수업(-0.7%), 숙박 및 음식점업(-0.6%)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 들어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공공행정 등이 최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산업에서의 종사상지위별 일자리 변동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상용직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문에서는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현재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3.4%, 29.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용직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참조).

2010년 5월까지의 고용사정은 2009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7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농림어업을 비롯하여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몇몇 산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고용감소의 완충역할을 수행했던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도를 2010년에도 도입하는 등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여성·청년·고령자에서 고용회복조짐이 감지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고용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2010.6.29)는 2010년 상반기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를 통해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이 3.3%라고 발표하였다.³⁾ 이는 2009년 상반기 2.6%에 비해 0.7%p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은 17.9%로 나타나 2009년 상반기 18.0%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산업별 인력부족률을 보면 운수업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4.5%), 출판영상 등(4.5%)이 평균 이상의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별·직능수준별 미충원율이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충원율은 직능1, 2수준에서는 광업,

3)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4월 1일, 10월 1일) 실시된다. 여기서 부족인원은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의미한다. 또한 미충원인원은 적극적인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한다.

<표 5> 일자리 증가 산업의 종사상지위별 변동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제조업	전 체	-52	-126	-22	-157	104	-31	-140	190
	임금근로자	-49	-96	-36	-106	59	-74	-57	131
	상용직	9	10	-3	32	104	-9	43	153
	임시직	-49	-73	-34	-105	-7	-51	-69	-3
	일용직	-9	-33	1	-33	-38	-14	-31	-19
	비임금근로자	-3	-30	15	-51	45	43	-84	59
	고용주	-13	-9	-1	-31	20	14	-41	19
	자영자	12	-18	19	-15	0	26	-35	3
건설업	전 체	-37	-91	-27	-76	-24	-40	-125	46
	임금근로자	-0	-60	15	-35	-55	-8	-90	7
	상용직	55	11	71	32	11	68	31	8
	임시직	-13	-30	2	-35	0	3	-45	-13
	일용직	-43	-40	-58	-32	-66	-78	-76	12
	비임금근로자	-37	-32	-42	-42	31	-32	-35	39
	고용주	-20	-20	-22	-20	-2	-16	-24	2
	자영자	-17	-12	-17	-20	29	-12	-17	35
도소매업	전 체	-41	-32	-27	-54	4	-30	-69	31
	임금근로자	-22	4	9	-34	66	-5	-54	113
	상용직	34	24	73	4	77	63	-23	126
	임시직	-58	-10	-77	-27	4	-85	-2	3
	일용직	2	-10	13	-12	-15	17	-29	-16
	비임금근로자	-20	-35	-36	-20	-62	-25	-15	-81
	고용주	-3	11	1	2	3	9	-5	-5
	자영자	-20	-38	-26	-24	-28	-24	-21	-29
사업 시설 관리 등	전 체	20	-29	39	-19	45	-6	-18	60
	임금근로자	14	-25	30	-11	39	-8	-11	60
	상용직	18	49	26	27	110	11	40	113
	임시직	3	-31	5	2	-78	1	-13	-64
	일용직	-6	-43	-2	-40	7	-21	-37	11
	비임금근로자	6	-4	9	-8	6	3	-7	0
	고용주	2	5	-4	8	4	-1	6	1
	자영자	1	-8	7	-12	2	1	-11	1
공공 행정 등	전 체	43	191	51	52	48	73	89	69
	임금근로자	44	191	51	52	48	73	89	69
	상용직	39	13	57	-1	4	59	9	-13
	임시직	4	187	5	46	74	12	65	126
	일용직	1	-9	-10	7	-30	2	14	-44
	비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0
	고용주	0	0	0	0	0	0	0	0
	자영자	0	0	0	0	0	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	0	0	0	0	0	0	

〈표 6〉 산업별·규모별 인력부족률,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채용계획인원

(단위: %, 천 명, 명)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족 인원	인력 부족률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채용 계획 인원	2009.3	2010.3	증감		
				전체	직능 1수준	직능 2수준	직능 3수준	직능 4수준						
전 체	285	3.3	104,881	17.5	18.9	20.6	12.8	4.8	295	12,053	12,406	353		
산업	광업	0	1.3	104	21.1	22.7	21.5	10.7	0.0	0	21	20	-1	
	제조업	118	4.5	45,265	29.2	29.9	30.7	24.2	19.4	118	2,998	3,074	77	
	전기가스 등	0	0.3	49	6.0	10.7	4.5	2.2	15.4	0	102	77	-25	
	하수폐기물 등	1	2.3	370	14.4	11.7	13.3	26.4	0.0	1	63	52	-11	
	건설업	20	3.0	5,448	8.8	4.7	9.5	16.1	7.9	21	1,110	1,051	-59	
	도소매업	23	2.9	8,197	18.0	17.4	21.1	14.9	12.4	23	1,218	1,184	-34	
	운수업	25	4.7	11,274	33.9	29.5	41.8	16.5	0.0	24	618	647	30	
	숙박음식점업	14	6.0	4,027	19.0	22.1	12.7	16.0	0.0	15	552	582	30	
	출판영상 등	16	4.5	5,128	26.2	19.3	28.9	25.9	28.7	15	545	575	30	
	금융보험업	4	1.1	1,504	9.0	16.2	10.2	5.9	1.5	6	716	758	42	
	부동산업임대업	3	1.1	424	4.4	4.0	5.2	3.5	10.9	2	196	251	55	
	전문과학 등	14	2.5	4,267	14.1	15.3	15.0	14.3	3.0	14	603	631	28	
	사업시설관리 등	16	2.7	6,924	10.9	9.5	14.2	14.6	0.0	20	734	772	38	
	교육서비스업	7	1.4	2,216	3.7	16.4	11.5	1.6	1.3	9	1,294	1,351	58	
	보건업 등	17	2.7	6,645	10.9	6.9	12.5	10.2	7.7	18	746	830	84	
	예술스포츠 등	2	1.8	849	14.5	14.8	17.6	8.0	0.0	2	174	151	-23	
	협회 및 단체 등	6	2.6	2,189	18.7	20.5	20.0	13.2	5.6	6	366	399	34	
	규모	300인 미만	252	3.8	93,389	19.6	20.2	21.5	16.0	9.3	254	10,476	10,859	383
		300인 이상	32	1.7	11,492	9.5	12.3	15.8	4.9	2.3	41	1,578	1,547	-31

주: 1) 미충원인원은 명 기준임.

2) 사업체고용동향조사는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월 자료와 비교함.

3) 농림어업, 공공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4) 직능1수준: 무경력자, 학력무관, 자격증무관, 직능2수준: 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및 초대졸 이하, 직능3수준: 2~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수준, 직능4수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수준을 의미함.

자료: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보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조업, 운수업이, 3, 4수준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직능수준별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지원·창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2010년 5월 현재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586천 개 증가하여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2010년 5월 현재 6.4%), 구직단념자의 증가(2010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1.7% 증가)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불안요소가 남아 있음을 반증해 주는 지표들이다. 최근 고용취약계층(여성, 청년, 고령자)에서의 고용회복조짐이 보이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나아졌느냐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인력부족이나 미충원인원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공급·수요측면에서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표 1〉 일자리 증가 산업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변화

(단위: %)

		2008	2009	2008 (1~5월)	2009 (1~5월)	2010 (1~5월)	2008 5월	2009 5월	2010 5월
제조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85.1	85.4	84.9	85.6	84.8	84.4	86.0	85.1
	상용직	60.2	62.4	58.9	62.2	63.1	59.3	62.6	63.4
	임시직	18.5	17.2	19.3	17.4	16.8	18.8	17.6	16.7
	일용직	6.4	5.8	6.6	6.0	4.9	6.3	5.7	5.0
	비임금근로자	14.9	14.6	15.1	14.4	15.2	15.6	14.0	14.9
	고용주	5.8	5.8	6.1	5.5	5.9	6.4	5.6	5.8
	자영자	6.1	5.8	6.0	5.9	5.7	6.3	5.6	5.4
	무급가족종사자	3.0	3.0	3.0	3.0	3.6	3.0	2.9	3.7
건설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78.4	79.1	78.2	79.7	77.6	79.2	79.7	78.1
	상용직	28.1	30.2	27.3	30.3	31.4	26.0	29.6	29.2
	임시직	12.9	11.8	13.6	12.2	12.4	14.1	12.6	11.5
	일용직	37.4	37.1	37.3	37.1	33.8	39.1	37.6	37.3
	비임금근로자	21.6	20.9	21.8	20.3	22.4	20.8	20.3	21.9
	고용주	9.9	9.3	10.0	9.3	9.3	9.7	9.0	8.9
	자영자	10.4	10.2	10.4	9.8	11.6	9.9	9.7	11.4
	무급가족종사자	1.3	1.4	1.3	1.3	1.5	1.2	1.6	1.6
도소매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53.5	54.1	53.9	53.7	55.5	53.8	53.4	56.0
	상용직	21.5	22.4	21.4	21.8	23.9	21.6	21.3	24.6
	임시직	25.1	25.1	25.4	25.0	25.1	25.1	25.5	25.4
	일용직	6.9	6.6	7.1	6.9	6.5	7.2	6.6	6.0
	비임금근로자	46.5	45.9	46.1	46.3	44.5	46.2	46.6	44.0
	고용주	9.6	10.0	9.6	9.8	9.9	9.9	9.9	9.7
	자영자	27.3	26.5	27.1	26.8	26.0	27.0	27.0	25.9
	무급가족종사자	9.6	9.4	9.4	9.6	8.6	9.3	9.8	8.4
사업 시설 관리 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94.3	94.6	94.1	94.8	94.4	94.5	95.1	95.4
	상용직	46.7	53.3	46.5	50.4	59.4	46.9	52.0	60.0
	임시직	35.5	33.3	35.5	36.4	26.7	35.2	34.5	26.2
	일용직	12.2	8.0	12.1	8.0	8.4	12.3	8.7	9.2
	비임금근로자	5.7	5.4	5.9	5.2	5.6	5.5	4.9	4.6
	고용주	2.2	2.8	1.8	2.7	3.0	1.8	2.4	2.4
	자영자	2.7	1.9	3.1	1.9	2.0	3.0	1.9	1.8
	무급가족종사자	0.8	0.7	1.0	0.6	0.6	0.7	0.6	0.4
공공 행정 등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79.1	65.7	81.0	76.1	72.7	77.0	70.8	64.8
	임시직	16.0	31.2	15.0	19.4	26.3	18.0	23.1	33.8
	일용직	4.9	3.1	3.9	4.5	1.1	5.0	6.0	1.4
	비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0.0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0	0.0
	자영자	0.0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